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촛대[燭臺] – 갈이틀 제작 목 촛대

사진 1

나무로 만든 등잔대뿐만 아니라 촛대의 경우에도 그것을 만든 방식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주는 종류들이 있다. 질감이 뛰어난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질감이 살아있는 재료를 끌이나 칼, 조각용 기구, 자귀, 낫 등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깎아 만든 것, 그리고 갈이틀[선기(鏇機)]과 같은 보다 진전된 기계를 이용하여 만든 것 등이 있다. 특히, 갈이틀의 경우는 무엇보다 둥근 면 처리가 돋보이는데, '갈이장이'라 불리는 전문 장인(匠人)이 만들었다.

갈이틀의 기법은 재료를 틀에 고정시켜 두고, 굴대를 돌리면서 칼(갈이칼)을 대어 여러 가지 형태의 물건을 빠른 속도로 깎아내는 것이다. 두개의 기둥에 홍두깨 같은 굴대를 가로질러 놓고, 두 사람이 한 조로 작업을 하였다. 한 사람은 굴대의 한쪽 끝에 가죽 끈을 감아 끈의 양쪽 끝을 두 손으로 번갈아 잡아당겨 굴대가 쉴 새 없이 앞뒤로 돌게 하고, 또 한 사람은 굴대의 다른 한 끝에 갈아야 할 재료를 단단하게 끼워 놓고 갈이틀을 쥐고 굴대가 도는 대로 만들고자 하는 모양대로 갈아낸다. 이 때 굴대가 한쪽 방향으로 돌 때에만 갈리고, 그 반대로 돌 때에는 갈리지 않게 된다. 굴대가 돌 때 재료가 칼에 깎이거나 갈려 용품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갈이칼은 '칼대'라고 하며, 한 자 정도의 나무막대기에 네 치 정도의 조각도 모양 칼날을 꽂아서 만든다. 깎아내는 면에 따라 사용되는 칼의 모양이 다른데, ㄱ자로 길게 굽은 속칼은 나무속을 파낼 때 쓰고, 끝이 살짝 삐친 등칼은 겉을 깎을 때 쓴다. 또한 매끈하게 할 때는 매칼, 홈을 팔 때는 홈칼, 꼭지를 깎거나 홈 속을 파낼 때는 귀칼, 큰 함지박 같은 것을 깎을 때는 평칼을 쓴다.

갈이틀로는 개인의 기호(嗜好)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제 이러한 방식은 촛대나 등잔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용기를 만드는 데 이용

사진1 목제쌍촛대[木製雙燭臺]// 조선시대// 높이 28.5cm, 밑지름 9.7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2 목제쌍촛대[木製雙燭臺]// 조선시대// 높이 25.2cm, 밑지름 8.6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3 목제쌍촛대[木製雙燭臺]// 조선시대// 높이 25.7cm, 밑지름 10.9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4 목제쌍촛대[木製雙燭臺]// 조선시대// 높이 41cm, 밑지름 19.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5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30.6cm, 밑지름 16.6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만들고자 하는 용품에 알맞은 나무를 골라 우선 톱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낸 다음, 재단기라고 할 수 있는 띠톱으로 생각한 모양과 대충 비슷하게 깎는다. 이렇게 깎은 것은 만들고자 하는 것의 본으로 '백골'이라 부르며, 또한 처음 자른 것이라고 하여 '초갈이'라고도 한다. 이 그릇을 다시 정교하게 깎은 것은 두 번 갈았다고 하여 '재갈이'라고 한다. 재갈이는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정교한 작업이다. 노동부 지정 목기 명장 서태랑씨의 말을 빌면, 재갈이 작업은 갈이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목기에 칼대를 들이대어 순식간에 옆과 바닥의 살(두께)을 똑같이 깎아내야 하므로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작은 그릇이 꼭 맞게 큰 그릇에 포개져야 하는 발우(鉢盂) 같은 것은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갈이 후 만들어진 몸체에 옻칠을 하면 그릇이 완성되는데, 나무의 종류에 따라 칠하는 방법도 다르다. 예를 들면 수양버들 나무는 옻칠에 담그고, 박달나무는 붓으로 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옻칠은 아홉 번 정도 하며 한번 칠 할 때마다 사포나 기계로 갈아내서 새 칠이 잘 붙게 해야 한다.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와 그 속성에 따라 옻칠하는 방법도 달라지지만, 그릇에는 옻칠을 아끼지 않아야 피막형성이 잘되고 대를 물려 써도 될 만큼 견고해진다.

전통적인 갈이틀의 사용은 조선시대 풍속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기 공재(恭齋) 윤두서와 관아재(觀我齋) 조영석의 〈선차도(鏇車圖)〉, 19세기 말 기산(箕山) 김준근의 《기산풍속도(箕山風俗圖)》에 수록된 여러 그림에서도 당시 사용되던 갈이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목기제조〉나 〈갈이장이〉, 〈통그릇(통그릇) 깎고〉 등의 그림 이름[畵題]으로 전해지고 있다. KEA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6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36.5cm, 밑지름 10.5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7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94cm, 밑지름 17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8 목제촛대[木製燭臺]// 조선시대// 높이 117cm, 밑지름 20cm// 국립민속박물관
사진9, 10 김준근(金俊根) 《기산풍속도(箕山風俗圖)》중 〈목기제조〉, 〈갈이장이〉